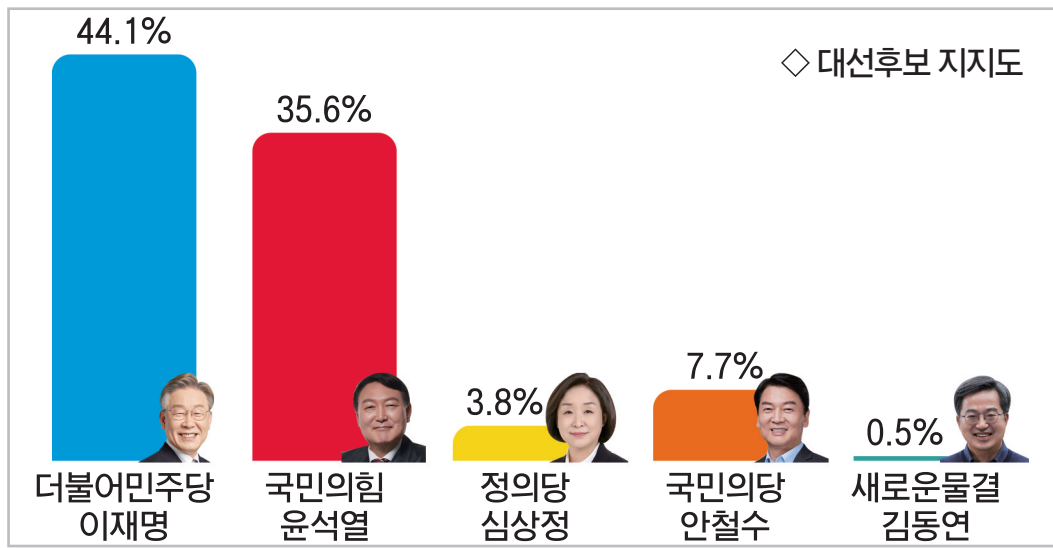


이재명 44.1% vs 윤석열 35.6% 오차범위 밖 우세...당선 가능성 과반



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다만 제3의 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1.9%로 지지도(7.7%) 대비 5.8%포인트 낮아 대선 후보 구도는 양자대결로 굳어가는 양상이다.

정치 이념 성향 별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진보 성향 응답자 77.6%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으며, 윤석열 8.7%, 심상정 4.6% 순이었다. 중도 성향은 이재명 46.2%, 윤석열 31.5%, 보수 성향은 윤석열 69.6%, 이재명 13%, 안철수 7.7%, 심상정 2.0%였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의 변경 의향에 대해 응답자의 69.8%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 다른 후보로 바뀔 것(28.8%)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3%로 국민의힘 38.7%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부정평가 50.1%로 긍정평가 47.3%보다 다소 높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응답은 40.5%로 윤석열 후보 31.6%보다 8.9%포인트 높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일까지 2일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ARS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3개 통신사에서 제공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토대로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길용현 기자

전남매일-대신협 대선 공동 여론조사

오는 3월 대선을 60여 일 앞두고 전남매일과 대한민국 지방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3면

호남과 대전·충청권, 인천·경기에서는 이 후보가, 대구·경북, 강원·제주에서는 윤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부산·경남에서는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전남매일과 대신협이 공동으로 예시리서치에 의뢰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 권역별 대선 후

보 지지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44.1%를 기록, 35.6%에 그친 윤석열 후보를 8.5%포인트 차이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7.7%, 정의당 심상정 3.8%, 새로운물결 김동연 0.5%, 그 외 다른 인물 1.3%, 지지후보 없음 5.4% 순이었다.

지역별로 이·윤 후보는 각각 당 핵심 기반인 호남과 대구·경북에서 50%이상 지지를 기록했지만 서울과 부산·경남에서는 접전양상을 보였으며, 윤 후보의 고향인 충청에서는 오히려 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강원·제주에서는 윤 후보가, 인천·경기에서는 이 후보가 두 자리수 포인트 차이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이 후보가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우위를 보였다.

지지하는 후보와 상관없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재명 53.7%, 윤석열 37.5%로 16.2%포

광주·전남 거리두기 2주 연장

광주시와 전남도가 코로나19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정부방지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선 기존 방역수칙이 대부분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집중 구분 없이 4명까지, 행사·집회

는 집중 구분 없이 49명까지 또는 집중완료자만으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집중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299명까지, 집중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허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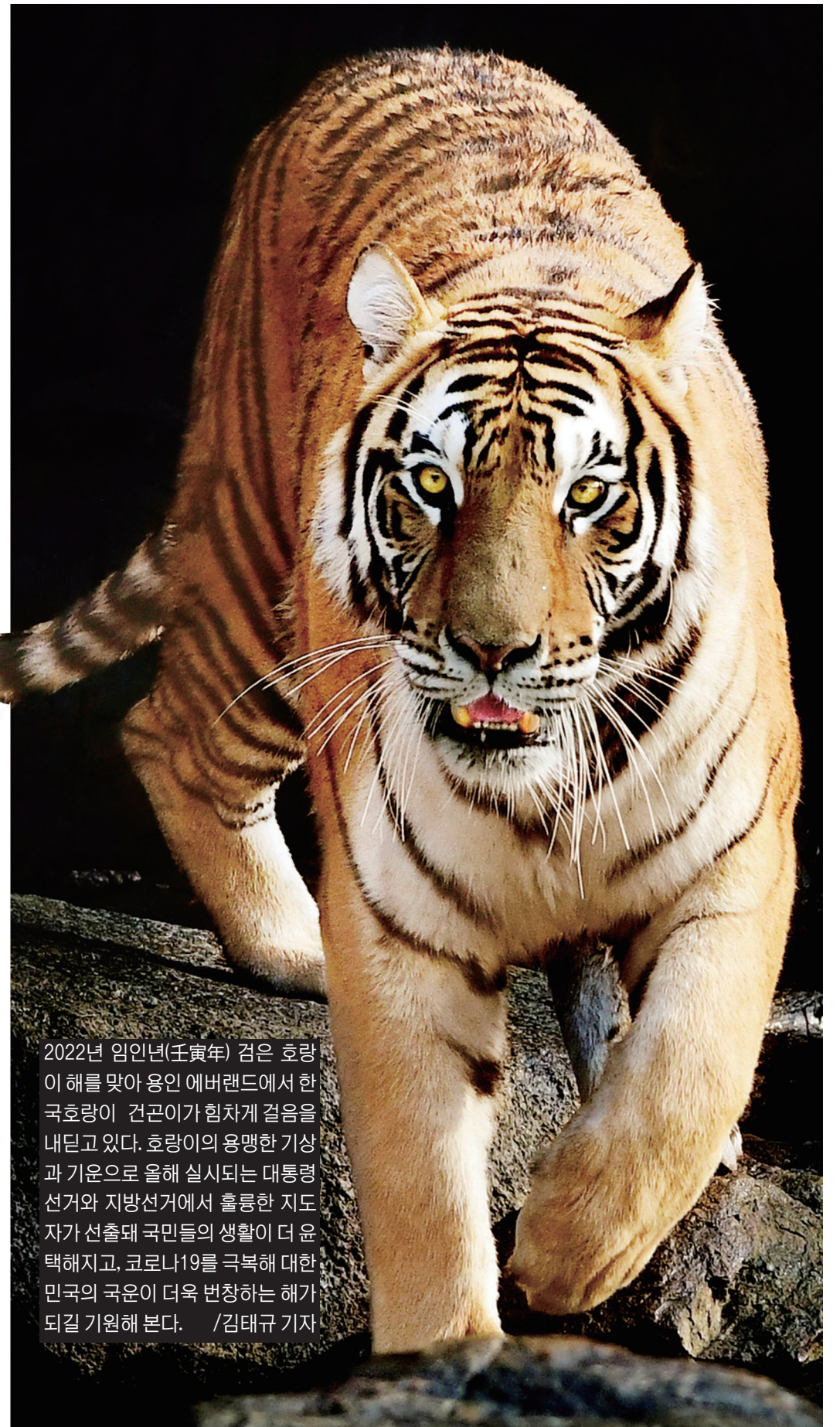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클럽·무도장 등은 밤 9시까지, 학원, 독서실, PC방, 키즈카페,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등은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은 운영상 여건을 고려해 상연·공연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밤 9시까지 허용한다. /길용현·오선우 기자

전남매일 신춘문에 '골드문학상' 당선작

- ▲소설-임춘보 '씩' ▲시-강일규 '미역국'
- ▲동화-문체영 '새벽 놀이터'

범 내려온다~ 코로나·액운 비켜라



2022년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 해를 맞아 용인 에버랜드에서 한 국호랑이 건근이가 힘차게 걸음을 내딛고 있다. 호랑이의 용맹한 기상과 기운으로 올해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선출돼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 나아지고, 코로나19를 극복해 대한민국의 국운이 더욱 번창하는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김태규 기자

지면안내
오늘 32면 발행

2022 선택과 집중 4~10면 | 신년기획 11~15면
2022 전남매일 신춘문에 골드문학상 16~20면

광주·전남 대표은행

광주은행

지방은행 브랜드 파워 1위
4년 연속 1위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2022 해 복 많이

새로운 희망